

영광군, 꿀벌 바이러스 예방 및 응애관리 교육 실시

양봉 농가 70명 대상 (주)바이오비 하성섭 대표 강의로 진행 “이론 집중 교육·철저한 관리기술 지도해 월동 피해 최소화”

영광군은 지난 14일 양봉 농가 70명을 대상으로 ‘꿀벌 바이러스 예방 및 응애관리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바이오비 하성섭 대표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월동 꿀벌 봉군 관리방법 ▷바이러스 및 응애류 방제기술, 특히 국내 유입 2년차로 전국적으로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기문응애 현황 및 방제법을 적극 교육했다.
최근 꿀벌이 집단폐사하거나 사라지면서 농

가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월동이 들어가는 시기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벌집을 나간 벌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월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 활동을 하다 폐사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교윤자)은 “위기감이 고조된 양봉농가에 바이러스 예방 및 병해충 방제기술에 대한 이론을 집중 교육하고, 월동봉군의 철저한 관리기술을 지도하여 월동 피해를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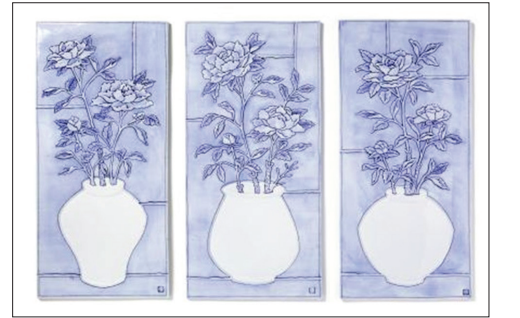
한편 영광군은 월동꿀벌 피해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대체하고 이상 징후 대응을 위하여 월동꿀벌 대책반(22. 12. ~ 23. 3. 31.)을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무안군, 식품·공중위생관리 우수기관 표창...천만원 확보

무안군은 2022년 식품·공중위생관리 업무 평가 결과 음식문화개선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00만원 상사업비와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과 위생등급제 확산, 좋은 식단 실천, 안심식당 운영, 특수식재 발굴 등 8개 항목의 지표로 평가를 실시해 무안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털어먹기 실전을 위해 위생용품 지원 등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적극적으로 안전한 식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한편 명품음식거리 조성, 식품위생업소 운영자와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 등 자체 사업을 활발히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산 군수는 “이번 수상은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준 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모란 화병도

목포생활도자박물관, 기획전 ‘청화백자, 그림이 되다’ 개최

2023년 3월 9일까지 김태희 작가 전시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이 오는 2023년 3월 9일까지 특별기획전 [청화백자(靑畵白磁), 그림이 되다 - 김태희 초대전]을 개최한다.
경기도 파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희 작가는 청화백자의 청색 안료, 전통 민화와 조각보에서 모티브를 얻어 세라믹과 회화, 입체의 영역으로 도조화(陶彫畵)의 새로운 확장을 선보인다.
박물관 관계자는 “전통 주거와 현대 건축의 실내용도 잘 어울리는 백자와 청화, 전통 용기 등을 재해석한 작품들에서 색다른 감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갯바위 문화타운에 개관한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은 목포자연사박물관과 더불어 전남의 대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새마을문고 신안군지부, 국민독서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새마을문고 신안군지부(회장 이화자)는 16일 신안공설운동장 회의실에서 ‘대통령기 제42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신안군 예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는 국민들의 독서문화운동 실천을 위해 △종합평가 △운영부문 △독후감 △편지글로 나누어 시군구 예선 및 시도 및 중앙대회에서 선의 경쟁을 펼치는 행사다.
이번 군 예선전에는 총 31편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에서는 △독후감 단체 부문 4팀 12편 △개인 부문 12편의 우수작품

△편지글 부문 7편 표창을 진행했다.
특히 신안군에서 출품한 108편 중 독후감 단체부 고등부가 전라남도 예선대회에서 우수작품에 선정됐으며 독후감 개인 중등부 1편, 편지글 초·중등부 2편, 일반부 1편이 장려상, 중앙대회에서는 편지글 일반부 최우수 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화자 새마을문고신안군지부 회장은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섬 신안군의 특색에 맞게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변화와 도전에 앞장서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문고 신안군지부는 연말을 맞아 신안보육원 아동을 위해 200여권의 도서와 선물을 증정하는 등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생활에 위기가 있어 이번 겨울이 더 춥다면, 긴급복지지원이 곁에 있습니다.
지금 문의 및 지원요청하세요.
문의: 거주지역 사군구청 긴급복지담당자 또는 국민콜센터 129 (24시간 상담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영암군, 동절기 긴급복지지원 집중 홍보

영암군이 겨울철 한파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곤란에 처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지원-후조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와 주거지원을 비롯하여 3백만원 내의 의료지원과 학년별 교육비 지원 등이 있으며, 특히 동절기(10월부터 3월까

지)에는 연료비를 특별 지원하고 있다.
군은 관내 인구 이동량이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반상회보를 게시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주위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료비 지원이 가능한 내년 3월 말까지 중점적으로 위기가구가 발굴에 힘쓸 예정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가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통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군, 도급사업 관계자 실무교육 실시

도급·용역·위탁사업 및 수급업체 담당자 30여 명 대상

함평군은 지난 16일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도급·용역·위탁사업 및 수급업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함평군립미술관에서 도급사업 관계자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고,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작업 중 노출되는 산업재해로부터 군 소속 근로자는 물론이고, 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상반



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직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분기별로 현업업무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함평=김광훈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